

3. 공통조어의 재구

Jones는 1786년 산스크리트의 발견을 계기로 인도어와 유럽제어간의 친족관계를 믿게 되었고 현존하지는 않으나 이 언어들에 모체가 되는 언어 즉 인구어 공통조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Jones의 가설은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목적이 되었다. 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비교의 방법도 발달하여 비교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자 이 언어들간의 유사 이전의 공통적인 역사 예컨대 인구어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공통조어를 재구하려는 시도는 Schleicher에 의해서 비롯되었는데 그의 재구방법은 과학적이었고 취급된 자료도 광범위했다. 그는 그의 주저서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1861)에서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Bopp의 대저서 *Vergleichende Grammatik des Sanskrit, Zend, Griechischen, Altslavischen, Gothischen und Deutschen*(1833-52) 이후 인구어 비교언어학사상 제2의 전환기를 의미한다.

Schleicher가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론 및 방법은 현재에도 그 분야에서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의 형태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된 두 언어의 분기 이전의 가상적인 기본형태를 찾거나 시대상으로 동일한 발전단계에 속하는 두 언어의 음운형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현재 알려진 다수의 언어는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를 비교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Krahe 1970, 37).

Schleicher(1861-62, 8)에 의하면 공통조어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언어정신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졌고 그 음운체계는 개별어의 것보다 단순하나 체계적이며 다음과 같이 15 개의 자음과 9 개의 모음으로 성립되었다:¹⁸⁾

자 음						모 음		
k	g	gh	j	s	v	a	i	u
t	d	dh	n	m	r	aa	ai	au
p	b	bh				âa	âi	âu

18) Schleicher에 의하면 공통조어의 음운체계는 공통조어가 어근으로 분기될 시기에 15 개의 자음(회랍어와 유사함)과 9 개(산스크리트와 유사함)의 모음으로 성립되었으며 초기에는 한층 더 단순하여 기식음, 장모음, 이중모음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Schleicher는 공통조어의 어형을 재구함에 있어서 주로 산스크리트에 의존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다른 모든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가 다른 인구어에 비해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공통조어는 체계적이고 굴절어이며¹⁹⁾ 9 개의 격, 3 개의 수, 3 개의 성과 다양한 동사변화 체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Schleicher는 그가 재구한 인구어 공통조어를 실제로 존재했던 어형으로 간주했고 다음과 같이 공통조어로 우화를 번역했다:

[Das] Schaf und [die] Rosse.

[Ein] Schaf, welchem Wolle nicht war (ein geschorenes Schaf), sah Rosse, das [einen] schweren Wagen fahrend, das [eine] grosse Last, das [einen] Menschen schnell tragend. [Das] Schaf sprach [zu den] Rossen: [Das] Herz wird beengt [in] mir (es tut mir herzlich leid), sehend [den] Menschen [die] Rosse treibend.

[Die] Rosse sprachen: Höre, Schaf, [das] Herz wird beengt [in den] gesehen-Habenden(es tut mir herzlich leid, da wir wissen): [der] Mensch, [der] Herr macht [die] Wolle [der] Schafe [zu einem] warmen Kleide [für] sich und den Schafen ist nicht Wolle(die Schafe aber haben keine Wolle mehr, sie werden geschoren; es geht ihnen noch schlechter als den Rossen.

Dies gehört habend bog (entwich) [das] Schaf [auf das] Feld(es machte sich aus dem Staube).

Schleicher의 재구(1868):

Schleicher의 번역은 고대 인도어의 모음체계가 원래 인구어 공통조어의 모음체계가 아

Avis akvāsas ka.

avis, jasmin varnā na ā ast, dadarka akvams, tam, vāgham garum vaghantam, tam, bhāram magham, tam, manum āku bharantam.

avis akvabhjams ā vavakat: kard aghnutai mai vidanti manum akvams agantam.

Akvāsas ā vavakant: krudhi avai, kard aghnutai vividvant-svas: manus patis varnām avisāms karnauti svabhjam gharmam vastram avibhjams ka varnā na asti.

Tat kukruvants avis agram ā bhugat.

19) Schleicher는 굴절어의 생성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Bopp의 이론을 수용했다. Bopp에 의하면 인구어 어근은 한 음절이고 인구어에는 연결의 기능을 가진 어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어는 유기적이고 문법을 소유한다. 이러한 유형에서 조어법의 기본원칙은 동사와 대명사 어근의 결합에 있다.

나라는 사실이 규명되기 이전에 재구된 것이다.

Hirt의 재구(1938):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이론을 토대로 한 텍스트인데 두번째 슈와(\tilde{b})× \tilde{b} 가 발견된 이후에 재구되었다.

owis ek 'wōses-k"e.

owis, jesmin wylānā ne ēst, dedork'e ek 'wons, tom, woghom g"brum weg-hontŋ, tom, bhorom megam, tom, gh'ymonŋ ōk'u bherontŋ. owis ek 'womos ewēwek"et: k'ērd aghnutai moi widontei gh'ymonŋ ek 'wons ag'ontŋ. ek 'wōses ewēwek"ont: k'ludhi, oweil, k'ērd aghnutai widontmos: gh'ymo, potis, wylānām owjōm k"ŋneuti sebhoi gh"ermom westrom; owimos-k"e wylānā ne esti. Tod k'ek'ruwos owis ag'rom ebhuget.

Peters의 재구(1980):

이 텍스트는 후두음이론을 토대로 하여 재구된 것이며 H(h_1, h_2, h_3)는 후두음을 표시 하는데 등근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그리고 사선의 양쪽에 있는 숫자는 어느 후두음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위쪽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h는 유기유성파열음을 표시한다. 후두음의 실제적인 음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매우 다양한데 이 텍스트에서는 h_1 는 [ç], h_2 는 [x], h_3 는 [x_w]라는 Cowgil(1973)의 이론을 따랐다.

h₂h₃oūis (h₁)ek'ūōsk"e

h₂h₃oūis, (H)jesmin h₂h₁h₂neh₂ ne (h₁)eh₁est, dedork'e (h₁)ek'ūons, tom, uoġ"om g"erh₂um ueġ"ontŋ, tom, b"orom meġoh₂ŋ, tom, d"ġ"emonŋ HoHk'u b"eronŋ. h₂h₃oūis (h₁)ek'ūob"os (h₁)eueŋk"e(t): k'ērd h₂g"nutoj moj uidŋtej d"ġ"emonŋ (h₁)ek'ūons h₂ġ"ontŋ. (h₁)ek'ūōs (h₁)eueŋk"eŋ: k'lud"i, h₂h₃oūi! k'ērd h₂g"nutoj uidŋtb"os: d"ġ"emō(n), potis, h₂h₁h₂neh₂ŋ h₂h₃eūjōm k"ŋneuti seb"oj g"ermom uestrom; h₂h₃eūib"osk"e h₂h₁h₂neh₂ ne h₁esti. Tod k'ek'luūōs h₂h₃oūis h₂ġ"rom (h₁)eb"uge(t).

공통조어를 재구하려면 개별어의 정확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역사 즉 발전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자료(문헌)를 수집, 정리하고 이것을 토대로 비교방법(외적 재구방법)과 내적 재구방법을 적용하여 공통조어를 재구했으며 개별어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음운변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비교방법은 음운변화를 확인하고 전단계의 어형을 재구하는 방법인데 친족관계의 가설과 규칙성의 가설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이 방법은 동일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추정되는 언어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를 비교, 분석하여 음운대응 관계를 발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내적 재구는 언어의 공시적 기술에 필요한 자료에서 언어역사의 일부분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비교방법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형태상의 상이성에 근거하나 내적 재구방법은 동일한 언어에서 어느 한 형태소의 변이형을 토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형태론상으로는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나 형태음운론상으로는 서로 다른 변이형이 내적 재구의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비교방법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형태소의 변이형은 한 형태소에서 파생되었고 변이형의 서로 다른 형태는 그 언어에 고유한 언어변화의 산물이라고 가정하는 데 반해서 내적 재구방법에서는 변이형태소는 원래의 형태가 아니며 대체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음운변화를 통해서 생성된 역사적 변천의 결과라고 추정한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내적 재구를 통해서 전단계 어형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변이형을 야기시킨 특수한 언어변화도 재구하려고 시도한다.

내적 재구방법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정하는 작업이므로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는 물론 비교방법에 의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비교방법의 목적은 이상적으로 완전한 공시체계를, 현실적으로는 음소재고 목록이나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 이전 언어단계의 어형변화표 등과 같은 공시체계의 하위부분을 재구하는 데 있다. 언어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비교방법에 의해서 재구되는 데 반하여 내적 재구방법을 통해서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언어변화나 개별적인 어형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교방법에서는 친족어의 형태소나 음운체계를 비교하여 공통조어의 음운체계나 형태소 목록을 재구한다. 그 반면에 내적 재구방법에서는 개별어의 특수한 음운형태를 야기시킨 음운변화를 추정한다. 그러나 내적 재구방법은 언어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체계보다도 상위체계에 속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를 재구하는 과정에서 내적 재구를 적용할 것인가 또는 비교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관계 언어자료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알려진 친족어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전단계의 역사가 연구대상이라면 유일하게 내적 재구방법만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족어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두 방법이 배타적인가, 어느 방법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가 또는 어느 방법에 의한 결과가 더 정확한가는 간단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두 방법의 적용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방법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자매어중에서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자매어와는 다른 특수한 언어변화를 했다면 변이형태소중 어느 것이 더 오래된 형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적 재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확증된 구형의 언어형태는 비교방법으로 전단계의 어형을 재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내적 재구방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후에 당해언어에만 일어난 특수한 언어변화에 의해서 생성된 다수의 변이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

교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내적 재구가 언제나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와는 반대로 비교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실례로서 슬라브어의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모든 슬라브어의 형태음운론 체계는 적어도 3 개의(혹은 4 개의) 개별적이면서 시기적으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야기된 구개음화 현상의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슬라브어의 언어자료를 면밀히 고찰한다면 내적 재구방법만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이러한 일련의 구개음화 현상을 간단히 재구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대 교회슬라브어나 러시아어에는 구개음화되지 않은 자음으로 성립된 문헌 이전의 슬라브어 음운체계를 재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 만일 내적 재구 방법이 모든 슬라브어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비교방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구개음화된 자음이 유사 이전의 슬라브어에서는 구개음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내적 재구방법을 비교방법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슬라브어의 음운체계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는 구개음화 현상인데 여러 언어가 정해진 연대순으로 4 차례의 조건부 음운변화를 했다는 사실은 믿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언어 변화가 전단계 슬라브어의 시대나 늦어도 슬라브어가 방언으로 분기되던 시기에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것은 문제의 성격상으로 보아 한층 더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내적 재구방법이 비교방법의 선행조건이며 비교방법과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방법론상의 가정은 슬라브어의 언어자료가 입증하듯이 잘못된 견해이다. 형태소의 변이형이 존재하지 않는 전단계어의 공시체계를 이론상으로는 재구할 수 있으나 전단계어가 실제로 재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공통조어의 변이형태소(또는 음운규칙)를 재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약을 실제로 받는 자연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비교방법과 내적 재구방법의 간단한 실례를 열거하겠다:

1) 비교방법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인구어 개별어를 동시에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할 때 개별어에 나타나는 이차적인 모든 요소(규칙적인 음운법칙에 의해서 야기된 음운변화)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Krahe 1966, I.35f.). 어휘 *lat. lōcus* <*alat. loucos* 'Hain', *skt. lākāḥ* (= *lōkás*) 'freier Raum, Platz', *lit. laūkas* 'Feld, das Freie' 와 *ahd. lōh* 'bewachsene Lichtung'은 모두 동일한 어원에 속한다. 모든 어휘에 자음 *l*과 *k*(음운법칙에 의해서 *ahd. h* < *k*)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어말의 *-s*는 게르만어에서는 음운법칙에 의해서(중간단계를 거쳐서) 소멸되었다(*ahd. fisk/lat. piscis*, *ahd. gast/lat. hostis*). 고대 인도어, 라틴어와 리투아니아어에서는 마지막 음절모음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게르만어에서는 마지막 음절모음은 발음법칙에 따라 일찌기 소멸되었다. 고대 인도어와 리투아니아어에서 마지막 음절모음 *a*는 서로 일치하나 그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Skt. a는 a, e 또는 o로 소급되나 lit. a는 a 또는 o로만 그 출처가 소급되므로 e는 이들 어휘의 인구어 공통조어의 재구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a와 o의 두 모음중에서 공통조어의 발음질 모음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라틴어의 모음은 o(후에 u로 변함)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의 공통조어에서 모음 o가 마지막 음절모음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어근모음의 재구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Skt. ṛ는 au, eu 또는 ou에서, lit. aũ도 skt. ṛ와 같이 세 이중모음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공통조어에서 어근모음을 결정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lat. ou는 이중모음 eu와 ou로만 소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 au는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서는 제외된다. 그 반면에 ahd. ō는 au와 ou에서 파생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u는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서는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어에서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 적합한 모음은 ou인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조어는 *loukos로 재구되며 원래의 뜻은 'Lichtung, Waldblosse'이다.

이상에서 논술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Krahe 1970, 41):

alat. loucos 'Hain'	1	eu ou	k	o	s
skt. lokás 'freier Raum, Platz'	1	au, eu ou	k ^w , k	a, o, e	s
lit. laoĩkas 'Feld, das Freie'	1	au, eu ou	k ^w , k	a, o	s
ahd. loh 'bewachsene Lichtung'	1	au, ou	k	—	—
idg. *lōukos 'freie Feld, bewachsene Lichtung'	1	ou	k	o	s

2) 내적 재구방법

Grassmann의 법칙

Grassmann(1863)은 Grimm의 법칙중 둘째의 예외현상을 비교방법에 의해서 규명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보다는 산스크리트와 힌디어에서 각각 그 유형을 비교 즉 내적 재구방법에 의해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게르만어, 산스크리트, 힌디어 등의 어형을 비교방법에 의해서만 고찰한다면 이 가운데 어느 어형이 분기 직전까지 속해 있었던 공통적인 언어단계에 더 가까운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힌디어와 산스크리트에서는 특징의 위치에서 공통조어와는 대조적으로 유기음과 파열음 사이에 교체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가 개별어에서 일어난 사실은 힌디어와 산스크리트의 반복동사(현재완료)의 형태에 의해서 입증된다. 이 언어에서 유기음이 내포된 어근이 반복될 때 skt. *ba-bhū-va 'er ist geworden', gr. *pé-phū-ka(phū에서) 'entwickeln'에서와 같이 산스크리트의 b는 유기유성파열음 그러나 힌디어의 p는 이에 대응하는 무성음이다.

따라서 이 두 언어에서 기식의 소멸은 서로 독자적으로 일어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반복 동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과 개별어 그 자체의 언어자료를 토대로 skt. *bha-bhū-va 및 gr. *phé-phū-ka(skt. da-dau와 gr. dé-dō-ka의 유형을 모델로 함)를 재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어형은 희랍어와 산스크리트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언어에서는 인접음절에 나타나는 2 개의 유기음중 하나는 이화작용에 의해서 그 기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운법칙을 Grassmann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정의하면 두 연속되는 음절에서 각 음절의 첫음이나 한 음절내에서 첫음과 말음의 위치에 나타나는 두 유기음중 그 첫째 유기음은 기식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른 어족과는 달리 인구어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은 인구어를 재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chlerath 1973, 6):

(1) 인구어 개별어는 서로 너무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재구는 높은 언어사적 공신력을 갖는다.

(2) 인구어 개별어는 최초의 문헌이 나타난 시기에는 그 형태가 서로 비슷하므로 언어 요소나 문법규칙을 완벽하게 재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구된 요소나 규칙을 공식적으로 배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3) 인구어 개별어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재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나톨리아어(특히 히타이트어), 인도어, 이란어, 희랍어, 이태리어 등은 서로 언어상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구하는 데 적어도 언어간섭현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인구어는 이러한 좋은 재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재구된 공통조어가 실제로 서로 일치됨을 볼 수 있다. 공통조어의 재구는 개별어에 현존하는 인구어 모체가 되는 언어에서 계승된 언어상의 특성에 기반을 두며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별어의 음운법칙이다. 음운법칙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서로 다른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유도해 낼 수 있는데 문헌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문헌 이전의 음운법칙은 개별어간의 음운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재구된다.

재구의 방법이 아무리 정확하고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재구된 어형은 실제로 사용되었던 언어 그 자체는 아니고 완전히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며 원칙적으로 한정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어떤 언어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언어의 음소 목록(음소의 실현이 아님)과 형태소 목록을 재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언어의 하위단위인 음소와 형태소로부터 어휘나 문법상의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규칙을 재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통사론상의 원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형태소 *k̄leu-‘hören’, 접미사 -os-, 그리고 강세된 e-계제의 어근에 접미사 -os-가 첨가되면 중성명사가 된다는 규칙을 재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된 규칙을 적용해

서 재구된 어형 **k̑léwos*-는 gr. *kléos*와 skt. *śravas*-와 같은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구된 언어 요소에 기초를 둔 하나의 가상적인 어형에 불과하다(ibid. 5). 그리고 또 이러한 규칙에는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데 재구된 언어 규칙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규칙적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4. 역사-비교언어학에 대한 평가와 비판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만스어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주로 19세기 독일의 학자들에 의해서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통일체로 간주하고 현재의 어형을 토대로 해서 과거나 미래의 어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대중이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언어의 공시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통시적인 면만을 치중하여 언어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항만을 인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언어의 체계성을 무시하고 개체성만을 강조한 것은 역사-비교언어학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언어의 형태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언어는 형식적, 음성적 개체로 격하되었다. 물론 언어를 개인적인 언어 활동(생성 + 해석)의 총화로 간주하는 실증주의적인 연구방법론을 주축으로 하는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언어이론은 언어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해서 분석적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Curtius는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연구 방법을 빗나간 자연과학의 모방이라고 혹평하면서 언어학을 사적인 정신과학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aussure에 의하면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연구에 공시적인 면과 통시적인 면을 혼동했으며 연구대상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친족관계의 비교에 관해서 중요성을 인정했으나 그 의의를 찾지 못했다.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대상은 비록 인구어에 제한되기는 했으나 체계화된 지식과 풍부한 자료축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현대언어학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언어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 역사-비교언어학 이론을 개별적인 주제와 결부시켜 실증주의 연구방법론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신이상주의의 여러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언어형태보다는 언어내용에 관한 연구가 강조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이 통사론,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 등 언어의 중요한 면에 관한 연구를 등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가장 큰 과오는 20세기 초반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기도 한 언어와 정신 그리고 언어와 사회 간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포괄

적인 언어이론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Herbst et al. 1979, 12).

그러나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언어사실만을 귀납적으로 고찰하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20세기 초기에 과학적인 지식의 축적과 특히 여러 학문분야에 수학적 사고의 확산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연역적 연구방법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역사-비교언어학자들도 언어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실제적인 언어분석 등에 관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동시언어학에서 공시언어학으로의 방향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이다. 그는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에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지했고 새로운 설명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기호개념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Husserl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심리주의를 배격함과 동시에 사회현상은 개인을 구속하는 외재적 집단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Durkheim의 사회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언어를 사회적 사실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Saussure에게는 언어는 사회적인 것임과 동시에 기호의 체제였다. 그는 언어를 고찰함에 있어서 모든 언어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언어를 내적 관련체계로 간주함으로써 역사-비교언어학은 물론이고 그 당시 모든 다른 언어이론을 극복한 셈이다. 동시에 그는 형식적 분석주의, 언어외적인 선형주의를 축출하고 언어를 언어로서만 이해하려는 언어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기호개념은 무엇보다도 구조주의언어학에서 실현되었으며 구조주의언어학은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시언어학이다.

5. 결 론

학자들은 그 시대의 철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한편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선택된 연구대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하여 학문의 이론을 정립한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대상인 언어(특히 언어변화)를 경험적 방법으로 연구했다.

Bopp와 바로 그의 후계자들은 공통조어를 재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언어비교를 통해서 순수하고 완벽한 인구어의 원시적 형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를 찾아내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결과 인구어 개별어의 변화에 관한 고찰이 중시되었다. 공통조어의 재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언어학자는 Schleicher인데 그는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언어자료에 의존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연구방법론과 낭만주의 철학의 언어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들의 비교방법²⁰⁾은 언어가

20) 비교방법은 19세기 초기에 언어학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특히 비교해부학에서 사용되었는데 비교해부학이 언어학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Bopp와 Schlegel이 파리에 서 산스크리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 Cuvier의 이론을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유기체이고 문헌에 나타나는 퇴화된 어형에 순수한 원형의 유사성이 약간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 이유는 가장 적게 파괴된 어형 즉 가장 오래된 어형간의 비교에서 공통조어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언어형태의 비교만을 통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통조어의 재구를 위해서는 동계어의 문법적 구조의 형식적 유사성보다는 어근의 유사성 즉 어근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그들은 어근의 형태변화를 야기시킨 음운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동계어간 음운변화의 규칙성은 1818년 Rask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Grimm이 이것을 1822년에 하나의 법칙(Grimm의 법칙)으로 체계화했다. 그 결과 음성학이 역사-비교언어학의 핵심적 연구분야로 부상했으며 1976년 Winter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음운법칙이 발견되었다.

음운법칙은 형태에 관한 비교를 한층 더 확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의 토대가 되었다. 음운법칙의 발견과 더불어 공통조어의 음운체계와 어근의 재구가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연구대상이 형태론에서 어원론까지 확대되었다. 음운법칙은 형태적 유사성과 같이 비교의 기준을 제공했고 공통조어 재구의 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음운법칙의 규칙성에 관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Schleicher와 Curtius 등 제2세대의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연구 방법은 음운변화의 규칙성에 관한 가정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Schleicher는 음운변화는 조음작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인구어 초기단계에서는 강력한 언어감각 때문에 음운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후반기에 젊은이문법학파가 형성되었고 그들의 이론을 그들의 학술지인 *Morphologische Untersu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76-1910=6Bde.)에 주로 발표했다. Osthoff와 Brugmann(1878 iii ff.)이 그 첫 호에서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없고 음운은 동일한 환경에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변화하며 어휘 또는 문법상의 실체로서 특수한 단어들의 유추적인 창조나 변화는 인구어의 유사 또는 유사 이전의 모든 시대에 균일하게 존재하는 언어변화의 보편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어느 한 음운법칙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음운법칙이 이미 작용을 했거나 유추작용 때문이다.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음운법칙과 유추작용의 두 원칙에 의해서 모든 언어변화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불규칙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유추작용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그러나 방법론에 관한 한 유추작용은 부가적인 설명원칙에 불과했다. 예컨대 그들이 예외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추작용을 적용했다. 그들과 그들의 선임자 사이에 방법론적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변화(언어의 퇴화)의 법칙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가정했고 언어가 변화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순수한 어근의 형태와 의미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변화를 인정했다. 젊은이문법학자들의 목적은 변화 이전의 가상적인 원시상태의 공통조어가 아니고 개별어의 문헌을 근간으로 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인구어를 재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공통조어의 원형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문헌을 토대로 재구할 수 있는 공통조어는 무엇이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핵심문제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유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적용면에서 가장 진보되고 완벽한 언어연구 방법중 하나이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언어변화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공통조어의 재구와 언어의 계통적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음운법칙 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언어학의 비과학적 마지막 단계가 극복되었고 역사 비교언어학이 현대언어학 정립의 초석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 김윤환. 1988. 인구어 비교언어학. 민음사.
- Amirova, A/O'chovikov, A./Rozdestvenskij, V. 1980. *Abriss der Geschichte der Linguistik*.
Ins Deutsche übersetzt von B. Meier. herausgegeben von G. Meier.
- Amsterdamska, O. 1987. *Schools of Thought*.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 Bopp, F. 1816. *Über das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 in Vergleichung mit jenem der griechischen, lat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
Frankfurt a.M.
- Brugmann, K./Delbrück, B. 1897-1916.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Bd. I und II: Laut, Stammbildungs-und Flexionslehr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Bd. III-IV von Delbrück 1893-1900. *Vergleichende Syntax der Indogermanischen*. Strassburg.
- Grassmann, H. 1863. "Über das Aspiration und ihr gleichzeitiges Vorhandensein im An- und Auslaute der Wurzel." in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en* (=Kuhns Zeitschrift)
- Grimm, J. 1818. *Deutsche Grammatik*. Göttingen.
- Herbst, Th./Heath, D./Dederding, H. 1979. *Grimm's Grandchildren*. Current topics in German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 Krahe, H. 1966. *Indogermanische Sprachwissenschaft*. I. Lautlehre. Berlin.

- Krahe, H. 1970. *Einleitung in das vergleichende Sprachstudium*. Innsbruck.
- Leskien, A. 1876. *Die Deklination in Slavisch-Litauischen und Germanischen*. Leipzig
- Meillet, A.-Printz. W. 1909. *Dt. Einführung in di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Leipzig/Berlin.
- Paul, H. 188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Tübingen. [9. Auflage 1975.]
- Pott, A. 1833-36. *Etymologische Fors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Lemgo.
- Rask, R. 1916. *Undersogelse om det gamle Nordiske eller Islanske Sprogs Orprindelse*. Copenhagen.
- Saussure, F.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Bally, C./Sechehaye, A.(Hrsg.). Paris/Lausanne.
- Schlegel, F. 1808.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 Heidelberg.
- Schleicher, A. 1861.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Weimer.
- Schlerath, B. *Die Indogermanen*. 1973. Das Problem der Expansion eines Volkes im Lichte seiner sozialen Struktur. Innsbruck.
- Schrader, O. 1883. *Sprachvergleichung und Urgeschichte*. Linguistisch-historische Beiträge zur Erforschung des idg. Altertums. Jena.

《Zusammenfassung》

Untersuchungen zu Methodik und Rekonstruktion der Ursprache i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Youn-Han Kim

In der Situation, in der die Aspekte der Heterogenität und Dynamik natürlicher Sprachen und damit ihre Historizität zunehmend an Interesse gewinnen, scheint es sinnvoll, sich derjenigen Impulse zu vergewissern, die trotz des Vorherrschens synchronischer Theorie und Praxis die Entwicklung einer diachronischen Sprachwissenschaft bestimmt haben. Die Geschichte der Sprachwissenschaft kann als Folge von Versuchen verstanden werden, dem jeweiligen Erkenntnisinteresse entsprechende Aspekte von Sprache herauszuarbeiten und sie ohne Berücksichtigung anderer Aspekte zu beschreiben.

Erst im 19.Jhs. beginnt die Sprachwissenschaft als selbstständige Einzelwissenschaft zu etablieren, nachdem sich die Sprachwissenschaft von der Philosophie und Philologie löste. Die historische Methode sowie die Orientierung an den Naturwissenschaften waren kennzeichnend für die beginnende Sprachwissenschaft. Die Sprachwissenschaft der 19. Jhs. hatte ihre wissenschaftliche Qualität mit ihren historischen Methode begründet. Das bedeutet eine Aufwertung der Empirie und der induktiven Methode der Sprachbeschreibung.

Das Verhältnis von empirischer Forschung und theoretischer Bedeutung war in der diachronischen Sprachwissenschaft des 19.Jhs. von Beginn an unausgewogen. Als Theorieersatz fungierten zunächst teleologische Deutungen der Sprachentwicklung sowie Übernahme naturwissenschaftlicher Forschungsparadigmen. Die rasch wachsende Menge empirisch ermittelter Daten verlangte jedoch zunehmend nach theoretisch begründeter Systematisierung und Erklärung. Die Theorie des Sprachwandels, die sich dann im letzten Drittel des 19.Jhs. herausbildete, basiert noch weitgehend auf Generalisierungen über diesen Daten.

Das Hauptziel dieser Arbeit liegt in der kritischen Analyse der Untersuchungsprinzipien und Methodik der Rekonstruktion der Ursprache i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Der Autor hat sich dabei besonders bemüht, durch die systematische Beschreibung der Prinzipien und Methodik die Probleme der genealogischen Klassifikation der indoeuropäischen Sprachen und ihre Rekonstruktion der Grundsprache aufzuzeigen.

Bei der Ermittlung der substantiellen Verwandtschaft kann man sich sowohl der Analyse der sprachlichen Formen in Bezug auf ihre Bedeutung als auch der Analyse der Bedeutungen in Bezug auf die entsprechende Form bedienen. Beide Verfahrensweisen ergänzen sich gegenseitig und können einander verifizieren. Diese Ermittlungen beruhen auf Konfrontationen lexischer, semantischer und grammatischer Systeme von zwei und mehr Sprachen. Da es aber in der Regel zwischen Einheiten, die in den herangezogenen Sprachen vorhanden sind, keine eindeutigen Entsprechungen gibt, kann die Feststellung der Korrespondenzen zwischen den Einheiten der jeweiligen Sprachen nur auf dem Wege systemgezogener Ähnlichkeitsermittlungen erfolgen. Das Resultat einer solchen Vergleichung ist dann die Basis für die weitere Vergleichung. Auf diese Weise entwickelt sich das Verfahren gewissermassen aus sich selbst.

Das Prinzip, Systeme über ihre Elemente miteinander in Verbindung zu bringen, soweit sich diese Elemente nach etymologischen Kriterien zusammenfassen lassen, schafft die Möglichkeit, Systeme zu vergleichen. Das Bild, das durch die Etymologien einer Sprache entsteht, liefert einen Überblick über die semantischen Verbindungen dieser Sprache mit den übrigen Sprachen. Die Erforschung der substantiellen Verwandtschaft impliziert auch eine Reihe von Verfahrensweisen, die sich untereinander in einer rekursiven Beziehung befinden.

Die Verknüpfung der Verfahrensweisen lässt sich über die Aufstellungen von Rekonstruktionen erreichen. Schleicher verwendet zum ersten Mal die Methode der Rekonstruktion eines ursprachlichen Zustandes als Formensystem. Dabei wendet er dem systematischen Vergleich des lautlichen Baus der einzelnen indoeuropäischen Sprachen grosse Aufmerksamkeit zu und ist gleichzeitig um die Rekonstruktion ihres Ausgangszustandes bemüht. Die erhöhte Aufmerksamkeit, die Schleicher den Lautentsprechungen widmete, führte zu einer von ihm vorgenommenen Präzisierung der Kriterien der Verwandtschaftsbestimmung der Sprachen. Diese Kriterien werden nun aus der Identität des Lautmaterials innerhalb des Bestandes der lexischen und grammatischen Einheiten abgeleitet.

Die Rekonstruktion stellt eine theoretische Beschreibung eines bestimmten

sprachlichen Systems dar, auf welche die betreffenden Sprachen zurückgeführt werden. Eine Rekonstruktion setzt die Ermittlung so vieler Systeme voraus, als Divergenzpunkte in Beziehungen zwischen den sprachlichen Subsystemen der Lexik, Morphemik, Grammatik, Phonemik in Betracht gezogen werden müssen.

Das wichtigste Kriterium für die genealogische Klassifikation und für die Rekonstruktion sind die phonetischen Entsprechungen und die auf ihren aufbauenden Lautgesetze. Mit Hilfe der Gesamtheit der Lautgesetze kann die Ausdrucksseite von zwei zum Vergleich herangezogenen Sprachen aufeinander abgebildet werden. Aber die Aufdeckung und Beschreibung der Lautgesetze ist bis heute noch für keine Sprachfamilie vollkommen.

Die Einteilung in die einzelnen Verfahrensweisen in der hier vorgenommenen Art ist rein theoretisch. Sie beruht auf der Ausgliederung der Objekte der Analyse des empirischen Materials, das jeweils untersucht werden soll.

Mann kann die Entwicklung der Forschung schematisch in der Aufeinanderfolge von Verfahrensweisen wie folgt darstellen: 1. Etymologie → 2. lexische Entsprechungen → 3. Entsprechungen in Wurzeln und Affixen → 4. Entsprechungen der grammatischen Systeme → 5. Lautentsprechungen → Lautgesetze.

Dies genügt, um zu überzeugen, daß die vergleichend-historische Sprachwissenschaft ein kompliziertes theoretisches Gebäude darstellt, das eine rein auf innersprachlichen Faktoren beruhende Interpretation der sprachlichen Divergenz möglich macht.

Das gezeigte Schema der Verfahrensweisen kann im Zusammenhang mit der Interpretation der Abzweigungen vom Stammbaum verwandter Sprachen ausgelegt werden. In diesem Falle erscheint bekanntlich die Systematik der Sprachen als eine sukzessive Aufspaltung eines breiten Kontinuums der Sprachen in immer kleinere Gruppierungen. Dies ist die Basis der genealogischen Klassifikation der Sprachen in ihrer prinzipiellen Form.